



## 슬기로운 식물도감 테이블야자

테이블야자는 아열대지방에 주로 서식한다. 책상 위에 올려놓고 키운다 하여 탁상야자, 테이블야자라고 불린다. 작은 화분에 심어 키울 경우 20~30cm 정도이나 야생에서는 크기는 1~2m 까지도 자란다. 짧은 줄기가 가지 없이 단단하며 곧게 자란다. 줄기는 지름 1~2cm 정도로 짧은 줄기가 가지 없이 단단하며 곧게 자라며 잎자루가 떨어져나간 부분은 매듭이 생긴다.

실내의 조명만으로도 잘 자라 실내에서 기르기에 적당하다. 반양지나 반음지에서 잘 자라며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야한다. 강한 햇빛을 쬐었을 경우 잎의 가장자리가 마르는 것을 볼 수 있다. 생육에 적합한 온도는 20~27℃이며 겨울에는 10℃ 이상을 유지해 주어야 월동할 수 있다.

생육이 느린 편이며 재배가 쉽고 병충해에 강하고 환경적응이 빠르다. 공기 중에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벤젠, 폼알데하이드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하는데 좋아 공기정화식물로도 적절하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테이블야자

### 1. 테이블야자 정보

생육온도	20~27℃
햇빛	강한 직사광선을 피하고, 실내에서 가능한 밝은 곳에서 기른다.
배치장소	거실 및 베란다
물주기	물을 좋아하므로 잎에 수시로 분무기로 뿌려준다. 물은 겨울에는 5~7일에 1회 흠뻑 주고, 성장기(5~9월)에는 주2회 준다.
번식방법	포기나누기
특별관리정보	아래쪽 잎이 시들면 잘라주어 공중습도가 다습한 것을 좋아하며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한다.

### 2. TIP

-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. 무작정 물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적당한 애정으로 살필 것.
- 식물이 햇빛을 쬐는 방향에 따라서 이파리가 자라나는 방향도 달라진다. 한쪽만 햇빛을 받도록 두지 말고 여러 방향으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자.
- 햇빛과 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많은 이들의 경우 통풍의 중요성을 간과한다. 식물 주변에 공기를 흐르게 함으로써 호흡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.